

전남도 “장성 경쟁력 확보 사업 적극 지원하겠다”

김영록 지사, 장성군 방문...첨단 의료·아열대 농업 분야 등 청원 지하차도 개설 지원 준비 중...문학박람회 개최도 검토

전남도가 장성지역의 첨단 의료·아열대 농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장성군을 방문, “의료 및 아열대 농업, 첨단 데이터 센터 등 다방면에서 성장하는 장성을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장성군청 아카데미실에서 김영록 지사, 김한중 장성군수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김한중 군수는 이날 행사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특히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도비 10억 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청운 지하차도는 호남선 철도 구간으로 발생한 동서간 지역 격차 해소 및 원활한 교통망 구축을 위

해 지난 2021년 6월 착공해 올해 7월 현재 지하벽체 구조물 설치 및 지하 터파기를 시행,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청원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한 뒤 “전남도는 장성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장성군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성이 학문과 선비의 고장인 점과 관련,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역 문학 발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장성군 정책비전 투어’ 토론회를 주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장성에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문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김한중 군수가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전남 균형발전 300사업 지원을 요청하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데, 장성군이 충실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나경열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첨단 미래산업 중심,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장성’을 주제로 미래비전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나 연구위원은 장성 7대 미래 비전으로 ▲뇌혈관 특화 첨단 의료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혁신거점 구축 ▲대한민국 대표 국민센터 조성 ▲명품 문화관광도시 조성 ▲아열대농업 선도 혁신 플랫폼 ▲

장성 복합 쇼핑·문화거점 구축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장성은 오는 2027년 1월 첨단의료연구의 구심점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9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애플망고, 레몬 등 재배작물 다양화를 통해 전국 아열대 재배기술 선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국제인증 확대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산양식관리협의회와 협약

전남도가 지난 11일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와 지역 우수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국제인증 저변 확대 업무협약식을 도청 서재 필실에서 가졌다.

〈사진〉

협약식에는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수산양식관리협의회의 크리스 닐슨(Chris Nines) 글로벌 CEO, 이수용 한국대표, 전남 어업인 대표,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인증 어가, 수출업체, 수협조합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인증표준 개정 시 전남의 수산업 여건을 인증표준에 반영 ▲인증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유지 프로그램 발굴 ▲인증 심사위원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어업인 교육 협력 ▲인증 수산물 확대를 위한 시장 인지도 개선 공동 노력 등이다.

전남도는 협약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국제 인증



확대로 내수 프리미엄시장과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산양식관리협의회와 협력하고, 국제 인증 요구 수출시장 신규 진입으로 전남 수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협약을 통해 전남 양식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신뢰 받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인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

대한다”며 “국제 인증표준을 선도해 전남 수산물의 품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와 수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양식관리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시장 확산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로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친환경 수산양식 국제인증기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구충곤(사진) 전 화순군수가 지난 11일 신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했다. 구충곤 청장은 첨단해상운송시스템 분야 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립대총장, 화순군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다.



양청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미래 비전 제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등에 따른 국내외 투자유치 실현 가능성을 높은 책임자로 평가받았다.

특히 군수 재임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가면역치료플랫폼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화순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4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책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임용 협의를 마쳤다.

구충곤 청장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추진력, 광

구충곤 청장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과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해, 광양만권이 글로벌경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까지 국내외 473개 기업, 25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만110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사회서비스원 ‘창의학교 전남’ 경사났네

참여 학생 소속팀, 블리썸 청소년음악제 최우수상

전남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이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인 ‘창의학교 전남’의 참여 학생이 ‘2024 블리썸 청소년음악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블리썸 청소년음악제”는 SK브로드밴드와 FNC엔터테인먼트의 비영리 공익 재단인 (재)LOVE FNC에서 개최해 ‘나와 우리의 행복을 노래하다’는 주제로 성안아트홀에서 열렸다. 창의학교 전남에 참여한 김동혁 학생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참가해 김동혁 학생의 소속팀 ‘두

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 CJ도너스캠프, 전라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창의학교 전남’은 10만 전남 인재양성 정책을 연계한 사업으로, CJ나눔재단,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 대학교수들과 비영리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해 1년간 창작 교육 과정이 진행되며, 오는 11월 15일 금요일에는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졸업무대를 진행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귀어학교, 예비 어업인 18명 배출

제11기 수료식...163명 수료 후 68명 전남 정착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11일 강진에 있는 전남 귀어학교에서 제11기 교육생 수료식을 개최, 18명의 예비 어업인을 배출했다. 예비 어업인들은 50대 8명, 40대 6명, 60대 1명, 30대 2명, 20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8월 시작된 교육에서 수산업 이론과 귀어 정책(2주), 선도 어가 현장실습(4주), 유통·가공(1주), 창업 분야 컨설팅

(1주) 과정 등을 거쳤다. 이날 수료식에는 18명의 교육생을 비롯한 전남 귀어학교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8주간의 교육을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시청, 수료증 및 표창장 수여, 교육 참여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생들은 귀어학교에서의 경험 덕분에 귀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장 실습

과 선배 귀어인의 실질적 조언이 큰 도움이 돼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 귀어학교는 지난 2020년 6월 개교해 이번 11기 교육과정까지 18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 7월 2020-2024년 상반기 수료생 163명을 대상으로 귀어 여부를 조사한 결과 71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중 68명이 전남에 정착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귀어학교에서 제공한 풍부한 정보와 현장 경험이 귀어를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수료생이 전남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